

# 報恩의 三年山城

申 榮 勳 -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法住寺로 가자면 서울에서 淸州를 지나 報恩邑으로 해서 구비구비의 말티재를 올라가 俗離山에 당도해야 한다. 직행 버스를 타고 가면 보은읍에 머물렀던 차가 읍의 동쪽길, 지금의 군청이 있는 산아래로 가게 되는데 버스 정류소에서 개울 건너 동편을 바라다 보면 군청 건너 동쪽 산에 우람한 성벽이 보인다. 오정산(烏頂山 海拔 325m)의 능선에 성벽이 연이어 있다. 三年山城이다. 주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漁岩里 1번지이고 정확한 위치는 북위 36°30'00", 동경 127°45'00"에 있다.

버스는 속리산으로 가자면 오정산을 끼고 돈다. 산의 동편으로 길이 계속되는데 尚州로 가는 길과 속리산으로 가는 길이 갈라진다. 법주사는 속리산 쪽으로 가야 한다. 유명한 말티재가 구비구비 가파르다. 재를 오르다 내려다 보면 삼년산성은 한 눈에 들어나 보인다. 작은 규모의 산을 토대로 삼고 성벽을 夾築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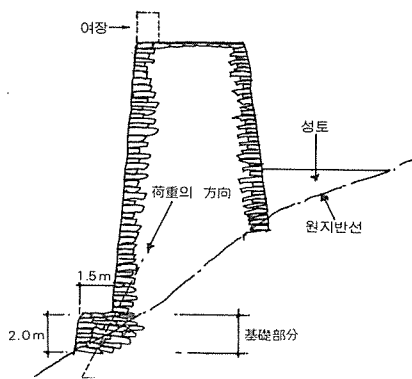


圖 1. 夾築城壁圖

성벽을 쌓는 법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산기슭을 이용하여 산을 적심삼아 바깥면에 벽을 쌓는 법식과 산기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독을 쌓듯이 성벽을 치 쌓는 법식이 그것이다. 後者를 夾築法(협축법)이라 부른다. 협축법은 한 면에만 성벽을 쌓는 공법에 비하여 공력이 많이 든다. 또 성벽을 높이 쌓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

다. 또 기초를 견고히 해야 한다는 공법상의 약점도 있어서 협축법은 사용이 드물다. 정말 마음 먹고 쌓는 성 아니고는 이렇게 힘든 성을 쌓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삼년산성은 공력이 많이 든 성이며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드문 특출한 내용을 지녔다.

오정산엔 봉우리 셋이 솟았다. 숲의 발처럼 세 봉우리가 鼎立되어 있는 사이에 능선이 이어진다. 山形은 삼태기 같아서 3면은 봉우리와 능선으로 높고 서편 한쪽만 낮아지면서 계곡이 되었다. 성벽은 능선과 계곡을 건너 지르며 계속되는데 성벽의 높이가 15m에 이르는 부분이 있다.

보통의 산성은 城基를 봉우리의 팔부 능선쯤에 잡는다. 그래야 쌓기도 쉽고 성벽의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도 좋다. 그에 비하면 삼년산성은 봉우리의 외곽, 기슭 끝에 城基를 잡았다. 작은 山의 좁은 地形을 넓게 쓰려는 욕심이었다고 이해되는데 산 둘레에 담장두르듯 이 성을 쌓았다고 할 수 있을만한 구축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독 쌓듯한 성벽과 봉우리 사이는 盛土하여서 터전을 장만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자니 人力이 이만저만 드는 일이 아니다. 盛土부분에 흙만 저다 부는 일도 연인원 수만명이 동원되어야 하였을 것이다. 거기다 13~15m 높이의 성벽을 안팎으로 독쌓듯 하는데 순전히 돌만으로 돌각담 쌓아서 엇물리게 하는 기법을 구사하여서 사용된 돌의 수가 어마어마하다. 날라다가 쌓는 일이 평지와 달라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을 것이다.

성벽에 사용된 돌은 보은지방에 흔한 켜가 격지를 이룬 것이어서 구들장처럼 납작납작하게 뜯 수 있다. 길거나 짧은 것들이 있어서 벽돌 쌓듯이 차근차근 엇물려 쌓게 되는데 돌의 하나 크기는 장정 한사람이 하나를 등에 질 수 있는 정도이다.

장정 수천명이 3년을 두고 쌓았다.

연인원 수십만명이 동원된 것인데 그만한 人力이 아니고는 도저히 축성이 불가능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생각은 서쪽 계곡에서 더욱 절실하다. 원래 계곡은 골이 깊은 편이었다. 그 깊은 계곡을 洑를 막듯이 독을 쌓아 막았다. 역시 성벽 축조하듯 돌만으로 조성하였다. 계곡바닥에서 계곡을 건너막는 높이 까지가 약 15m이다. 그 두께는 二重三重으로 보축하여서 25~30m 가량에 달한다. 계곡의 넓이로 보아 독의 길이는 100m 가량 될 것 같다. 여기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돌이 사용된 것이다.

독이 계곡을 가로막는 높이에 이르렀을 때 성내에서 흘러내린 물이 독안에 모였다. 계곡을 막았으니 흐르던 물이 담기게 된 것이다. 저수지가 생겨난 것이다. 이 못을 「아미지」라 불렀다. 지금도 西門 안쪽 큰 바위에 「蛾眉池」라 새긴 글자가 있다. 축조당초의 글씨는 아니더라도 上代에 새긴 것만은 틀림없다고 전하여 온다.

어떤 사람이 이 글씨가 金生의 친필이라고 말한다. 신라시대 제일의 명필이라 일컫던 김생선생께서 쓰셨다는 것이다.

김생선생은 충주의 金生寺 등의 인물로 이 지역에 글씨를 남길만한 분이라고 주장한다. 바위에는 「玉筆」



圖 2. 蛾眉池라 바위에 새긴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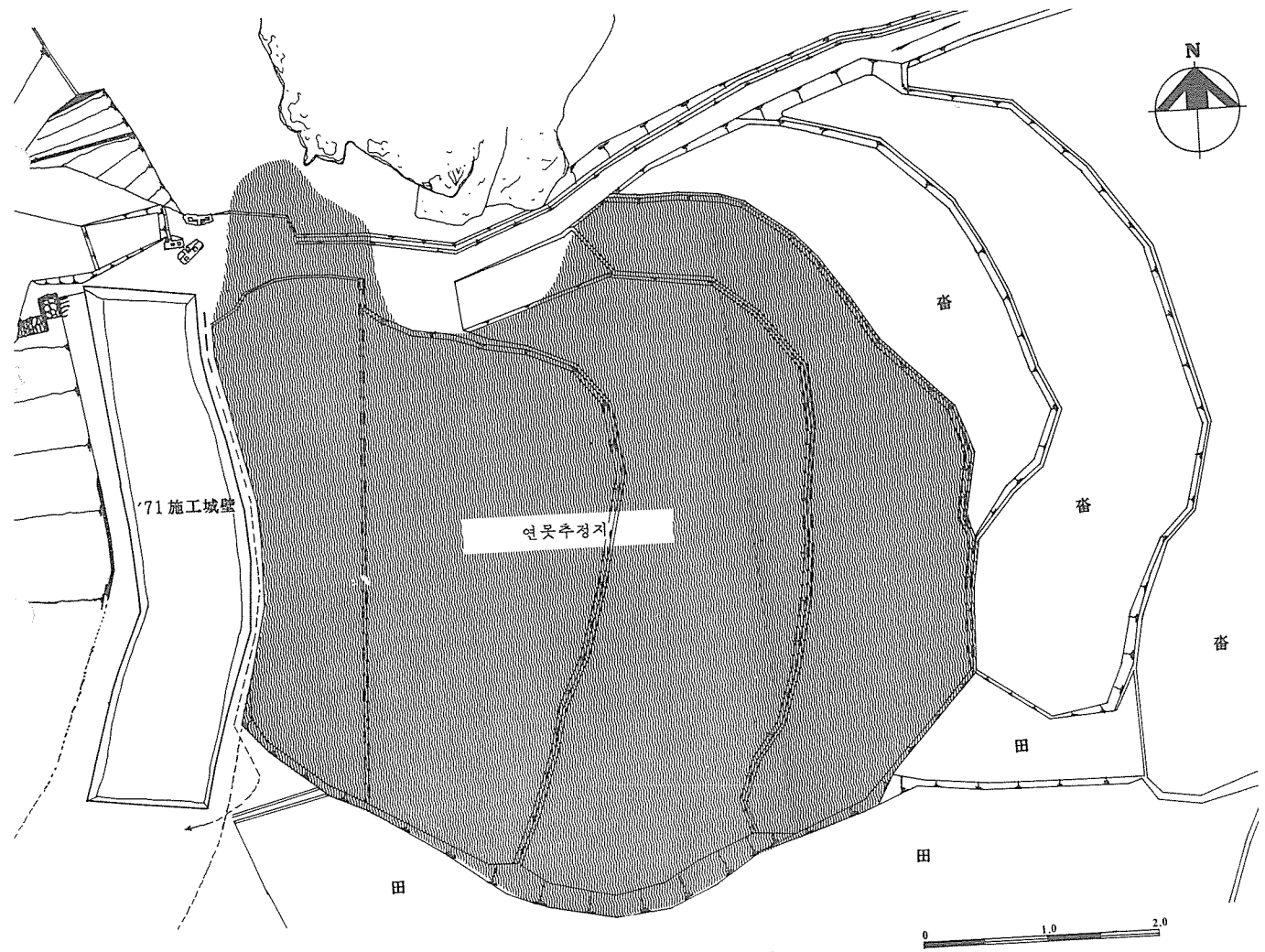


圖 3. 鐵屑池가 지금은 논이 되어 있으나 원래는 이만한 넓이였다고 추정된다.

의 글씨가 또 있다.  
 1979년도에 삼년산성 기초 조사를 하고 1980년도에는 西門址의 발굴을 실시한 바 있었다. [註：① 報恩三年山城基礎調査報告書 報恩郡刊 1979년 ② 三年山城西門址調査概報 報恩郡刊 1980년] 이 때에 「아미지」의 池畔이 西門 아주 가까이에 이르러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西門址에는 다행히 문을 세웠을 때 盤이 되었던 遺構가 남아 있었다. 信枋石과 門地枋石들인데 初期의 遺構와 後代의 것이 上下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대변천에 따른 變移를 볼 수 있다.

아랫쪽의 구조가 당초의 유구로 생각되었다. 문짝을 달았던 지두리흙이 남아 있고 기둥 세웠던 돌로 보이는 信枋石도 있어서 문얼굴과 문짝의 설치법과 구조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구조가 놀랍다.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城門엔 문짝이 鐵甲하였고 그것이 안쪽으로 열린

다. 달을 때엔 안에서 밀어 문얼굴에서 닫히며 문이 열리지 않도록 안쪽 띠방 아래로 장군목을 건너 지른다. 밖에서 攻城具로 문짝을 깨트리려 하여도 실한 장군목 덕에 쉽게 깨어지

거나 열리지 않는다.  
 西門의 문짝은 안에서 밖으로 열리게 되었다. 여느 문짝과는 반대의 현상이다. 信枋石과 문지방과 지두리흙으로 보아 문짝은 그렇게 열리도록



圖 4. 西門址上代 後代의 遺構

마련되었음이 분명하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들은 처음 보는 구조이어서 잘못 본 것이나 아닌가 해서 몇번을 확인하였지만 구조는 어김없이 그렇게 생겼다.

연못이 문에 가깝게 닥아서 있다. 문짝은 밖으로 열린다. 이 두가지 사항이 혹시 연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금년(1983)에 아미지의 발굴이 시행되고 있다. 결과는 완성되기 까지 기다려야 알겠지만 발굴을 통하여 문의 기능이 분명해졌으면 하는 기대에 차있다.

西門을 나서면 바로 낭떠러지이다. 계곡을 건너지른 독의 외곽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독의 외곽선 보다 약 6척쯤의 간격을 두고 성벽이 쌓였다. 독의 외곽선에서 안쪽으로 6척 들어간 자리로부터 독의 안쪽벽까지의 두께에 성벽을 치 쌓은 것이다. 계곡을 가로지른 독이 성벽의 基盤이 되었고 그 외곽은 6척폭으로 도로가 되었다. 지금은 도로가 서문이 있는 쪽 산기슭에 있지만 원래는 반대쪽 기슭에 길 이 있어서 독으로 해서 西門으로 들어오도록 되었었다. 지금의 반대편에 옛길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시설은 저절로 甕城과 같은 역할을 겸하게 하였다. 길이 성벽 아래로 회랑처럼 생겼으므로 성위에서 내려다 보는 감시 아래에 進入하여야 되었다. 西門의 북쪽은 가파른 언덕이다. 이 지형을 이용하여 城頭를 만들었다. 城門이나 독보다도 앞쪽으로 더 돌출되어 있다. 성벽 아래의 길을 마주 내려다 보는 위치이다. 공격군의 접근은 그만큼 어렵게 되었다.

攻城具의 접근이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사 撞車(당차)가 와서 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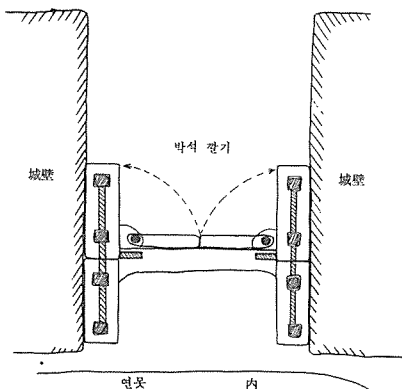


圖 5. 西門의 城門構成의 平面推想圖

을 부수려 한데도 밖으로 열리는 문짝이어서 사면에 틀이 짝 바치고 있으므로 깨트리거나 열리게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 더구나 문 밖에 좁은 광장 밖에 없으므로 그것의 작동조차 쉽지 않다. 보통 城門이 지니고 있는 守備의 약점을 철저히 보완한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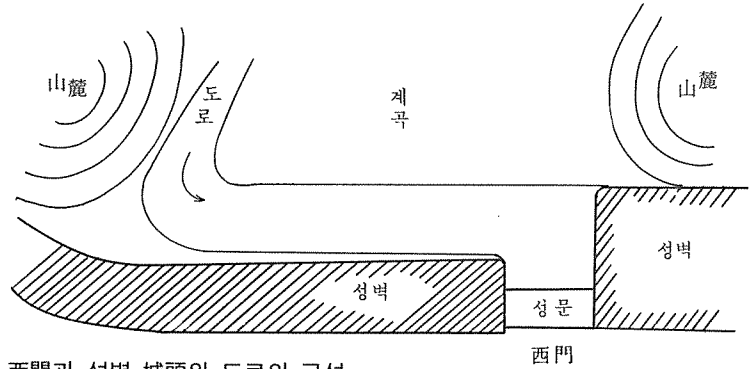


圖 6. 西門과 성벽 城頭와 도로의 구성

門밖의 이런 守備施設로도 공격군을 막을 수 없어 守卒들이 城內로 밀리면 문안의 「아미지」에서 제2의 방어선을 구축한다. 문에 들어서자 바로 「아미지」라던 통로를 위하여 架橋나 吊橋가 있었을 것이다. 유사시 그 다리만 건어버리면 성문에 들어선 적군의 길이 막힌다. 서성거리는 적군들은 화살받이가 되기 십상이다. 외곽방어와 성내방어의 二重防備 施設은 거의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守禦의 시설은 성벽 곳곳에 있다. 城頭, 城隅 등의 돌출부가 있어서 성벽에 접근하는 적병들을 감시·방어·협공할 수 있다. 후대의 敵臺·雉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들이다.

城內에는 다시 한 곳이 區劃된다. 西門에 들어서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이다. 봉우리 하나 솟아서 가로 막았다. 병풍을 두른 셈이다. 남쪽 셈이 있는 부근에 겨우 열린 골짜기로 해서 들어가면 완전히 격리된 盆地가 있다. 軍器나 軍糧米 등의 군수품이 저장되던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이다. 창고건물이 들어 섰을만한 곳이다.

가로막고 솟은 봉우리 위에 將基址가 있다. 여기에서 감시하면 창고자리는 완전히 장악된다. 기막힌 착상이며 地形의 이용인데 삼국시대 고신라 慈悲王 때에 이미 이런 發想과 造營이 있었다고 하는 점은 믿어지지 않는다.

자비왕은 신라 20대 임금이다. 458년에 등극해서 478년까지 在位하는데 자비왕 13년(470)에 삼년산성은 완성되었다. 3년을 두고 쌓아 완성시 성이란 뜻에서 三年山城이라 하고 여기의 통치군현을 三年山郡이라 하였다. 3년에 걸쳐 애써 쌓은 난공불락의 자랑스러운 전초기지를 신라인들

은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이름을命名하였던 모양이다. 통일 이후 景德王은 16년(757)에 三年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고려에서는 太祖가 23년(940)에 保齡郡이라 바꾼다. 上州(尙州·沙伐州)에 속하였고 淸州顯(薩買縣)과 靑山縣(屈山·靑山縣)을 거느렸다. 고려 顯宗 9년(1018)에 尙州에 예속되고 조선조 태종 6년(1406)에 報恩이라 이름을 바꾸었고 태종 13년에 경상도에 속해 있던 것을 지금처럼 충청도에 예속시켰다. 지금은 충청북도에 예속되었다.

삼년성·삼년산성이라 부르다가 世宗實錄에서는 鳥頂山石城이라 하였다. 邑誌와 金正浩의 『大東地志』에서는 鳥頂山城이라고 기록하였다.

자비왕 때 쌓은 삼년산성을 소지의 8년(486)에 屈山城과 함께 一善界의 丁夫 3,000명을 투입하여 개축한다. 이 공사의 총책임자는 伊滄實竹이었다. 伊滄은 신라의 벼슬 17등 중 제 2등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이다. 眞骨이어야 그런 벼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왕족이 이 방면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지역은 그만큼 신라에게는 중요한 요새지였다.

實竹장군은 삼년산성 등을 거점으로 남침하는 고구려군을 맞아 싸운다. 494년 7월에는 고구려군과 薩水에서 크게 싸워 이겼고 496년에는 牛山城을 공격한 고구려군을 泥河에서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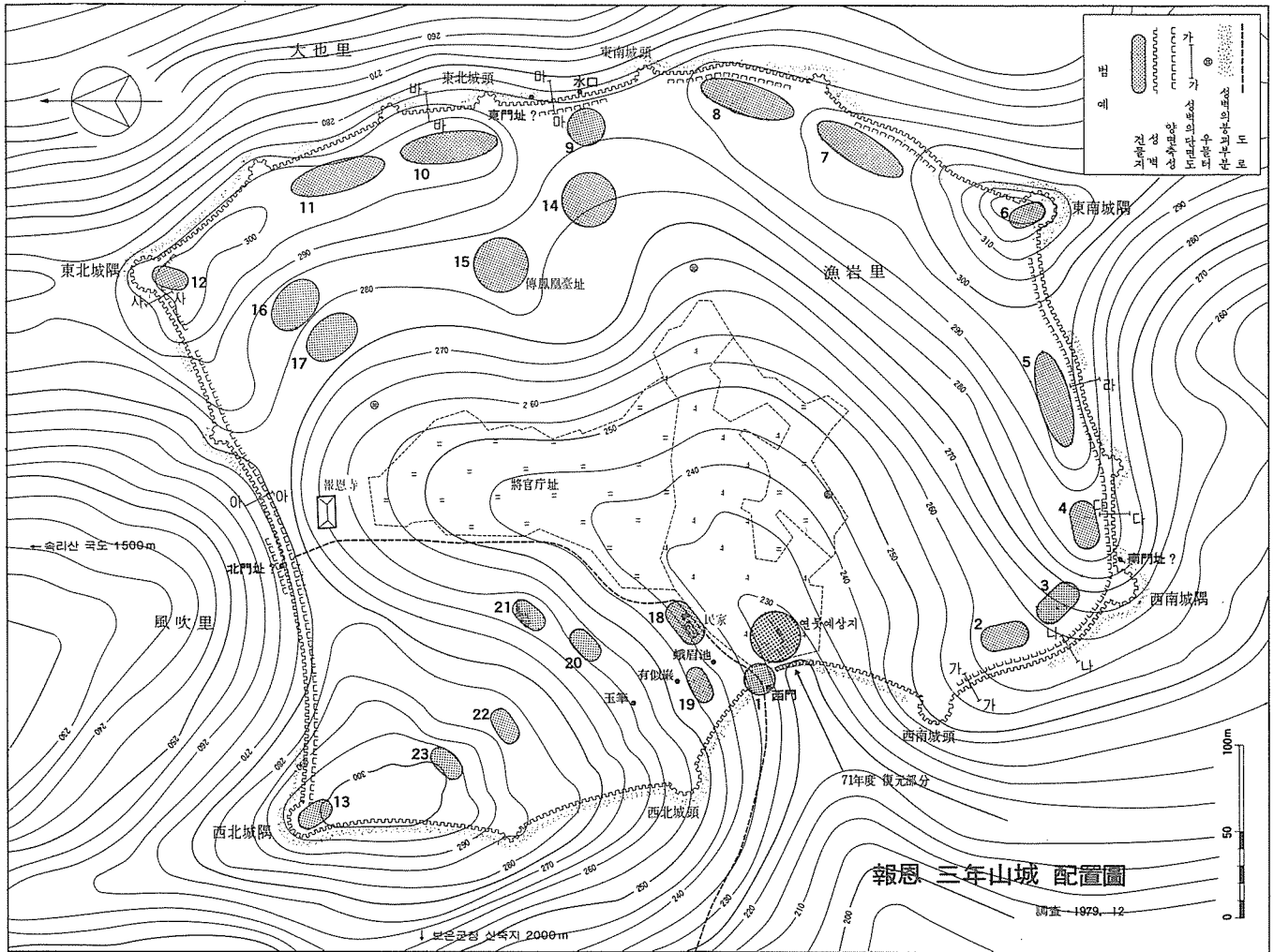


圖 7. 報恩三年山城의 防備施設들

싸운 大勝한다. 三年山城을 위시한 屈山城 등의 장졸이 이룬 大捷이었다.

삼년산성에는 정예의 부대가 늘 주둔하고 있었다. 진흥왕 15년(554)에 백제 聖王이 加良과 더불어 管山城(지금의 沃川, 당시 城主는 角于于德)을 공격하였다. 신라군이 맞아 싸웠으나 불리하였다. 新州를 지키던 金武力장군(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이 구원병을 보내 구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이때 三年山城軍이 출동하였다. 高干인 都刀가 거느린 신라의 정예군은 포위한 백제군을 역습하여 진중에서 지휘하던 백제임금을 전사시키고 佐平 네사람과 군졸 29,600명을 참살하는 大勝을 거두었다.

都刀는 裨將이다. 그의 벼슬 高干은 嶽干이나 述干과 같은 3등에 해당하는 外位이다. 고간의 벼슬은 외직에 있으면서 군사를 영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外位の 벼슬은 지방민들에 주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都刀는 三年山郡에서 立身한 사람

인 모양이다. 지방군을 거느리는 책임자로 삼년산성에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삼년산성은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에서 신라측 西部方面의 最前線 要塞이다. 신라가 소백산맥 넘어 西海에 이르러 唐나라와 交通하려는 정책을 수립하였을 때 이방면 최일선 거점으로 삼년산성을 손꼽았다. 삼년산성은 견고하여 난공불락일 뿐만 아니라 격조 높은 곳이어서 武烈王이 이 산성에 머물면서 態津都督인 左衛中郎將 王文度를 맞이한다. 당나라의 사신을 맞이할 수 있을만큼 위엄을 갖춘 성이었다.

신라와 백제의 국경충돌은 일진일퇴였다. 특히 西海岸의 진출을 목표로 삼은 신라군의 파상공격은 백제로서는 힘에 겨운 싸움이였다. 『三國史記』에는 신라와 백제의 격돌이 66회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서기 63년에 시작된 싸움이 백제가 멸망하고 百濟遺民들이 봉기하여 신라군에 항쟁하여

싸운 664년의 전투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런 전투에서 삼년산성은 소백산맥 이북의 전초기지로 중심이 되는 요새로 크게 활약한다. 그런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고 5세기 때 축성한 성벽과 西門의 遺構가 지금도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다.

법주사 가는 길에 잠깐 들러 산성을 보고갈 필요가 있다. 우리 조상들의 집념을 읽을 수 있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그분들의 정성을 感知할 수 있으며 建築·土木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최상의 수단을 강구하여 施工한 점도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遺蹟地의 순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바탕에 어떤 것이 깔려야 마땅하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란 말도 실감난다. 실제로 보았을 때 느끼는 짜릿한 감동은 남의 이야기로는 전달이 부족하다. 금년 봄에는 우리 三年山城에서 만남시다.